

군사 접경지역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와 활용 방안

Contents and Utilization of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in Sanyang-ri, Sangseo-myeon, Hwacheon-gun, Military Border Area

유춘동*

국문초록 이 글은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정리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MZ 접경지 중 하나로, 과거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관련 콘텐츠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상서면 산양리는 DMZ와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들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생활문화, 그리고 지역 전역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민속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콘텐츠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최근 들어 DMZ 접경지역은 평화, 안보, 문화, 역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양리 또한 이러한 흐름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특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양리의 문화자원과 콘텐츠화 가능성,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핵심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DMZ 접경지역,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아카이브

차례	1. 서론	천군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겪어왔다. 그러나
	2. 상서면 지역 개관과 특성	화천군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의 새로운
	3.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¹
	4.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 방안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천어 축제'와 '산양리 경관 개선
	5. 마무리와 과제	사업'을 들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

1. 서론

화천군은 강원도에 속한 군(郡)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MZ 접경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화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상민·박진경,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2(1), 지방행정연구학회, 2018, 125~160쪽.

2 채용식, 「화천 산천어 축제 관광객의 변화 추이 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8(3), 관광경영학회, 2014, 308쪽.

강원도는 2019년부터 국방 개혁 정책에 따라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가 이전·해체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 붕괴, 인구 공동화, 유희 군용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³ 하지만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과 민간인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처럼 활력 있는 군정을 주도하는 화천군에서, 본 글은 ‘상서면 산양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DMZ 접경지역으로,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 내 다양한 역사·생활 문화자원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군사시설 유적뿐만 아니라⁴ 다채로운 지역 문화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DMZ 접경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서면 산양리’ 또한 원주민의 고령화와 세대교체로 인해 민속을 포함한 각종 문화 자료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파악하고 보존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헌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상서면 산양리’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 실태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2. 상서면 지역 개관과 특성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문화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 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서면은 화천군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과 북서쪽에 위

치한 면으로, 과거에는 ‘서면(西面)’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체 면적은 219.25km²이며, 동쪽은 화천읍, 서쪽은 철원군 근남면, 남쪽은 화천군 하남면과 사내면, 북쪽은 철원군 원남면과 접해 있다.

조선 초기와 중기 시기에 상서면은 토고미(土古味), 구운(九雲), 파포(巴浦), 봉오(峰吾), 다목(多木), 노동(盧洞), 산양(山陽), 마현(馬峴), 논미(論味), 계성(啓星), 원천(原川), 서오지(鋤五芝) 등 12개의 리(里)를 관할하였다. 고종 30년(1893)에는 행정구역이 상·하로 분리되어, 논미·계성·원천·서오지 등 남쪽 4개 리는 ‘하서면(下西面)’, 나머지 북쪽 지역은 ‘상서면(上西面)’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하서면은 남면(南面)과 통합되어 ‘하남면(下南面)’이 되었다.⁵

산양리는 상서면에 속한 리(里)로, 지명은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산양역(山陽驛)’에서 유래하였다.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해 전국 각지로 통하는 길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방거리’로도 불렸다. 상서면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도 바로 이 산양리다. 지형은 남쪽으로 향해 있어 일조량이 풍부하고, 평지가 많아 농사짓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살아온 곳이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로 산양리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전쟁 이후 철원, 화천, 양구 등지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양리에 정착했으며, 휴전 이후에는 DMZ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군 병력이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상업 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이후 강원도민들의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산양리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현재 산양리의 인구는 군인, 군인가족, 그리고 지역 토착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곳에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제7보병사단(7사단)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옛 명성 살려라. 접경지 화천 최전방 ‘사방거리’ 속속 새 단장」, 『연합뉴스』, 2022.8.2.

4 조태환 외, 「한국 전쟁 군사 유적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3), 한국농촌건축학회, 2018, 47~56쪽.

5 해당 내용은 화천군청과 화천문화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처럼 산양리는 군과 민간인이 함께 지역을 이끌며 공존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표적인 DMZ 접경지역이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산양리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원주민들에게는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군장병들을 위해서는 DMZ 영화관, 실내 체육관, 휴게 센터 등이 조성되어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했다. 산양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군과 민간이 협력할 경우 지역 사회의 상생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산양리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콘텐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양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의미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상서면 산양리에는 지역 내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콘텐츠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자원의 분류 기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어 왔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 이 기준에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대분류한다.

최근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자원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정 문화유산’, ‘자연 자원’, ‘인문 자원’, ‘복합 자원’, ‘기타 소프트웨어 자원’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표 1> 지역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 문화유산	국가지정유산	문화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무형유산(국가무형유산)
	시도지정유산	각 시·도에서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재 등,
자연 자원	산악자원	명산/서식지/계곡/동굴/나무/바위/자연공원 등
	수변자원	강/하천/호수/해수욕장/항구/등대 등
인문 자원	주거자원	고택/생가/사당/재실/정자/서원 등
	문화예술	유물/인물/예술작품 등
	생활유산	특산품/전통음식/의복/묘/비각/장승 등
	불교유산	탑/사찰/불화/불상 등
복합 자원	휴양오락	온천/약수터/자연휴림지/식물원/유원지 등
	특수목적	재래시장/드라마촬영지/박물관/기념관 등
	테마마을	민속/농촌체험/어촌체험/자연생태마을 등
기타 소프트웨어 자원	스토리	전설/민담/실화/민요 등
	이벤트	축제/박람회/체육대회/미술대회 등
	연관 단체 및 기관	문화예술단체/기관/숙박 등

그러나 앞서 제시한 문화자원 분류 체계는 일반적인 도시 또는 군(郡)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화천군 상서면은 DMZ 접경지역으로, 일반 지역과는 구별되는 군 작전 시설, 안보 관련 시설,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적 및 콘텐츠 등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MZ 접경지역에서 발견되는 역사·문화자원은 기존 분류 기준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복합 자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해당 자원들이 단순한 문화·자연 자원이 아닌, 군사·안보·역사·교육·관광 등의 복합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보완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DMZ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원 분류와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다.

6 강인호 외, 「지역 역사 문화 및 생태자원의 개발 진단 및 활용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75~96쪽.

3.1. 상서면 산양리의 지정 문화유산

상서면 산양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문화유산으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27호인 인민군사령부 막사가 있다. 이 건물은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1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방형 구조의 화강암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로, 전체 면적은 약 350㎡(약 100평)에 달한다.

화천은 춘천으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은 서울 진격을 위한 서부전선과 춘천 점령을 목표로 한 중부전선을 구분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중부전선 작전의 핵심은 춘천을 점령한 뒤 가평 방면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부전선에서는 인민군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군 제6사단이 학도의용군과 지역 여성 근로자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2사단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황 속에서 인민군사령부 막사는 당시의 군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축물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황과 전선의 변화, 나아가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며, 200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27호로 지정되었다.⁷

3.2. 상서면 산양리의 자연 자원

산양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자원으로는 대성산(大成山)이 있다. 이 산은 화천군 상서면과 철원군 근남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DMZ 접경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대성산 정상에서는 서북쪽의 오성산, 동북쪽의 적근산, 남쪽의 북계산, 복주산, 광덕산이 한눈에 조망될 정도로 조망권이 탁월하며, 이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쟁 당시 대성산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대표적인 전투로는 금성지구 전투, 싸리골 전투, 육단리 전투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화

천 일대의 고지 전투 중에서도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평가된다.

특히 1953년 휴전을 앞두고 벌어진 전투에서는, 북한군이 아닌 중공군과의 대규모 교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중공군의 춘계 공세에 맞서 아군이 대성산을 끝까지 방어함으로써, 적의 남하를 차단하고 현재의 휴전선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대성산은 단순한 자연 자원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전쟁사적 가치, 군사적 전략성, 기념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복합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산 정상에는 당시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와 시비(詩碑)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억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성산은 상서면 산양리의 대표적인 복합 역사문화 자원으로, 생태적 가치와 전쟁사적 가치가 융합된 상징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3.3. 상서면 산양리의 인문 자원

상서면 산양리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문 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지역의 전통문화, 인물사, 묘역문화, 구비전승 등을 반영하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자원으로서는 마산동 산성, 광산 김씨 가문의 묘표, 함성구 기념비 등이 있다.

산양리는 조선시대에 산양역(山陽驛)이 위치해 있던 교통 요충지였다.⁸ 이 지역을 방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 마산동 산성이다. 마산동 산성은 단순한 방어용 성곽을 넘어서, 산양리에서 김화, 금성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산성의 고개 마루에는 서낭당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서낭당 안에는 자기마(磁器馬)가 놓여 있어, 지나는 이들이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현재 이 서낭당은 기록으로만 전승되고 있으나, 당시 민간 신앙과 교통 문화의 결합

7 화천군편, 『화천 인민군사령부 막사: 기록화 조사 보고서』, 화천군, 2020.

8 경기문화재단 편, 『성곽 유산의 연구 성과와 보존 정비 방향』, 경기문화재단, 2018, 69쪽.

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

한편, 산양리 사방거리 야산에는 광산 김씨 4대의 묘표(墓表)가 존재한다.⁹ 이는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어진 일가의 묘역으로, 김이건, 김득만, 김화징, 김광려의 묘표는 이 지역 인문자원의 핵심을 이루는 유물이다. 김이건(1691~1743)은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승윤(昇允), 호는 포생(圃生)이며, 사후에 공조참의(工曹參議)로 추증되었다. 그리고 김득만(1709~1785)은 김이건의 아들로 본관은 광산, 자는 옥선(玉先)이며, 사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추증되었다. 다음으로 김화징(1729~1792)의 본관은 광산, 어렸을 때의 이름은 화준, 자는 치운(致雲), 호는 송암으로 김득만의 아들이다. 1777년에 용위부호군(龍衛副護軍)에 올랐으며,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김광려(1757~1818)는 김화징의 아들로 본관은 광산, 자는 현정(炫政), 호(號)는 계은(溪隱)이다. 이처럼 광산 김씨 4대의 걸친 묘표가 산양리에 있다. 이들 4대에 걸친 묘표는 1941년에, 국학자 이능화(李能和)가 비문을 지어 남긴 것으로, 지역 유력 가문의 역사성과 문중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¹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인문 자원은 함성구(咸性九) 기념비이다. 이 비석은 상서면 마현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며, 1932년 일제강점기에 지역민들이 당시 구장(區長)을 지낸 함성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함성구는 지역 행정과 공동체 운영에서 헌신한 인물로 평가되며, 주민 자발적으로 기념비를 세운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기 마을 지도자에 대한 기념비가 실물로 전해지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희소하다.

3.4. 상서면 산양리의 복합 자원

산양리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자원에는 대성산 지구

전적비, 금성지구 전적비, 평화생태마을(일명 사방거리), 칠성 전망대, 감성 테마 문학공원(감성마을 이외수 문학관), 산약초 마을, 토고미 마을, 부촌리 주막거리와 장승 등이 있다.

먼저 대성산 지구 전적비(戰蹟碑)는 대성산 지구 전투에 참여한 장병들의 전공을 기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산 정상에 세워져 있다. 대성산 지구 전투는 1951년 6월 9일 국군 제2사단 17연대가, 대성산 1042고지에서 활동 중인 중공군 제20군 58사단 177연대 병력을 섬멸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다. 국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중공군이 차지했던 대성산 1042고지와 신월동, 865고지를 탈환하였다. 아울러 승암고개, 삼천봉, 비조봉 일대도 차지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철원군의 김화 지역을 우리 영토로 확보했다. 따라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6월 추모식이 거행된다.

그리고 금성지구 전적비(戰蹟碑)는 금성 전투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이다. 금성 전투는 1953년 6월과 7월에 휴전을 앞두고, 옛 금성군(金城郡) 지역인 강원도 김화 일대에서 한국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금성지구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대성산 지구 전투와 마찬가지로 철원 지역 일대를 우리 영토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군장병들의 공적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6월 추모식이 거행된다.¹¹

한편 상서면 산양리에는 평화생태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평화생태마을은 산양리 '사방거리' 일대를 말하는데,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사방거리를 민군이 합심하여 문화거리로 새로 조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방거리'는 사방으로 도로가 뻗어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¹²

11 김영규, 『근남&근남사람들』, 철원군, 2019, 48쪽.

12 한편, 장날이면 상인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흩어지면서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던 지역이란 뜻에서 생겼다는 설도 있다.

9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cmunhwa.or.kr>

10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cmunhwa.or.kr>

사방거리는 조선시대부터 촌락이었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군복무를 마친 전역 장병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마을과 마을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DMZ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근방에 3개 사단과 예하 여러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을 만들었다. 특히 솔저 스트리트를 조성하여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관민을 위한 각종 대중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군인들을 위한 DVD 영화관 등을 특별하게 만들어 각종 문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¹³

다음으로 칠성 전망대가 있다. 상서면 주파령로 4에 위치한 칠성 전망대는 이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이다. 칠성 전망대는 해발 596m의 GOP 중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다.¹⁴ 칠성 전망대란 명칭은 이곳에 칠성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생긴 것이다. 1991년에 세워진 이 전망대는 중부 전선에 위치한 주요 전망대의 하나로,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으로 흘러갔다가 평화의 댐으로 내려오는 금성천, 이곳의 산하와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칠성 전망대 주변에는 여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425고지전적비(高地戰績碑)이다. '425고지전투'는 영화 고지전의 배경으로도 유명한데, 1953년 7월 20일부터 휴전협정 조인할 때까지, 국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의 승리로 화천발전소와 백암산과 적근산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고, 중부/동부 휴전선이 38선에서 38km로 북상하게 되었다. 칠성 전망대는 이처럼 지역 복합자원이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진 하나의 사례이다.

그리고 감성 테마 문학공원(감성마을 이외수문학관)이 있다. 이곳은 상서면 감성마을길 158에 위치해 있다. 과거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감성의 문학 세계를 보여주었던 작가 이외수가 거주하며 관광객을 맞이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일명 '이외수 문학관'이라 부르기도 한다.¹⁵ 이외수 선생 사후에 이곳은 '감성'을 주제로 하는 문학관, '화천의 청정 자연과 함께 하는 문화 관광 기지'를 목표로 지역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상서면에는 산약초 마을이 있다. 상서면 갈목길 157에 위치한 이곳은 산약초 재배단지과 산책로, 테크로드, 약초 탐방로 등이 있다. 화천 지역은 산과 숲이 많은 청정지역으로 옛날부터 약초가 유명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자연산 약초를 채집하면서 살기도 했고, 약초를 재배하면서 살기도 했다.¹⁶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대규모 약초를 재배함과 동시에 특화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생업인 농업의 변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생활 자원이 바로 산약초 마을인 것이다.

그리고 상서면에는 토고미 마을이 있다. 상서면 토고미길 22-8에 위치한 이곳은 비옥한 토양과 만산동 계곡물이 흐르는 청정한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 여건을 살려 친환경 농업으로 쌀, 옥수수, 감자 등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토고미 마을이라고 불린 계기는 옛날 이 지역에 농사일로 품을 팔면 쌀로 품삯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한자로 토고미(土雇米)로 기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¹⁷

마지막으로 부촌리 주막거리와 장승이 있다. 상서면 부촌리에 위치한 주막거리는 과거 산양리 사방거리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쉬었던 주막이라고 하여 주막거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 주막거리에는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서낭당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장승만이 세워져 있고, 과

13 강종원, 『DMZ 사방거리 평화 생태 문화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원연구원, 2021.

14 화천군 편, 『화천 감성 여행』, 화천군청, 2022, 40~41쪽.

15 위의 책, 40~41쪽.

16 김익숙·강명혜, 『강원인의 생산 민속』, 민속원, 2005, 50~51쪽.

17 한국 구비문학 대계 홈페이지 참조. <https://kdp.aks.ac.kr>

거 주막이 많아 이곳을 '주막거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가 세워져 있다.

3.5. 상서면 산양리의 기타 소프트 자원

산양리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의 전통 신앙과 민속 문화가 깃든 다양한 소프트 자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소프트 자원으로는 상서면 구운리 산신제, 상서면 일대의 전승 민요, 전승 설화, 전승 지명 설화 등이 있다.

화천 지역은 산이 많아 전통적으로 산신제를 비롯한 마을 신앙이 활발히 행해져 왔다. 그중에서도 구운리 산신제는 상서면 일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산신제로, 구운리 마을에 거주하는 강씨, 최씨, 정씨 등 여러 성씨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제의를 지냈다.¹⁸

산신제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거행되었으며, 제사 장소인 마을 뒷산에는 산신당, 산신 바위, 산신 나무가 있었다. 제의는 주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산신제가 시작된 유래로는, 과거 수원 최씨가 구운리에 정착하며 우물을 팠으나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지시에 따라 우물을 없애고 나무를 심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산신 나무를 신성시하며 매년 산신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편, 화천 지역은 과거 호랑이가 많이 출몰하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이를 막기 위한 서낭당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서낭당은 마을 수호와 안녕을 기원하는 공간이었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산신제 역시 1990년대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이어졌으나, 현재는 거의 전승이 중단된 상태이다.¹⁹ 최근까지 이 지역 일대에서 진행된 산신제와 서낭당은 <표2>와 같다.

<표 2> 상서면 산양리 일대에서 행해졌던 각종 제(祭)

지역	내용
○ 봉오 1리 산신제	봉오 1리 산신제는 음력 9월 9일에 울목 골목에서 지냈다고 한다. 유래는 옛날 3년 흉년이 들었을 때 산신제를 지냈더니 풍년이 들어 계속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 봉오 2리 성황제	봉오 2리 산신제는 음력 9월 9일에 성황당과 제당 두 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 다목 1리 초파일제	다목 1리 초파일제는 음력 4월 8일에 주민이 모여 치성을 드리는 행사였다고 전한다.
○ 다목 2리 성황제	다목 2리 성황제는 음력 1월 3일에 선망고개 당나무 밑에서 지냈다고 한다.
○ 노동 2리 산제	노동 2리 산제는 음력 9월 9일에 마을 앞산 중턱에서 자정에 지냈다고 한다.
○ 부촌리 성황제	부촌리 성황제는 음력 9월 9일에 지냈다고 한다.
○ 산양 3리 산치성제	산양 3리 산치성제는 음력 9월 9일에 지냈다고 한다.

다음으로 상서면 일대에서 전승되는 민요에 대한 것이다. 이 민요는 1984년부터 2014년에 걸쳐 한국학중앙연구원 주도로 이루어졌다.²⁰ 그리고 이 결과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를 통해서 공개했다. 채집된 상서면 지역의 민요는 <한탄가>, <동계타령>, <상여소리>, <워음아리랑>, <어랑타령>, <잠자리 잡는 소리>, <아침방아 찻라>, <어랑타령>, <앞니 빠진 갈가지>, <이랴소리>, <우두그네>, <한알대 두알대>, <이랴소리>,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까지 모두 14편이다.

<한탄가>는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동계타령>은 아이를 재울 때 불러주는 노래, <상여소리>는 상여가 나갈 때 하는 노래, <워음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을 워어서 부른 노래, <어랑타령>은 말재담 노래, <잠자리 잡는 소리>는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 <아침방아 찻라>는 방아 쥘면서 부르는 노래, <앞니 빠진 갈가지/이 빠진 아이 놀리는 소리>는 어린아이에게 불러주는 노래, <이랴소리/밭가는 소리>는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 <우두그네>는 그네 뿔 때 부르는 노래, <한알대 두알대>는 다리 뽑기 할 때 부르는 노래, <이랴 소리>는 밭 갈 때에 부르는 노래, <일자나 한자 들고보니>는 숫자를 풀이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이 민요를 중에서 <상여소리>와 <어랑타령>은 화천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는 대표적인 민요로 알려져 있다. 화천

18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cmunhwa.or.kr>

19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cmunhwa.or.kr>

20 한국 구비문학 대계 홈페이지 참조. <https://kdp.aks.ac.kr>

지역은 특히 죽음과 삶을 연관시키는 민요가 많은데, 상서면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상서면 일대의 전승되던 설화도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 설화 역시 1984년부터 2014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주도로 이루어졌다.²¹ 이 결과 역시 <한국 구비문학 대계>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채집된 상서면 지역의 설화는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부인>, <사람이 드나들면 여자들이 바람나는 창바위>, <더운 물이 나오는 샘>, <방귀뀌어 소박맞은 여인>, <방귀쟁이 며느리>, <말이 정해준 못자리>, <일본 장수 목을 자른 평양기생>, <땅을 가져가지 못한 도깨비>, <호랑이를 잡은 아이들>, <이진사에게 쫓겨난 서진사>, <말 발목을 자르는 바위>, <며느리가 돌이 된 미루고개>,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진사>, <신통력 있는 천불사 스님>, <일본에 간 서산대사>, <뿔자리를 잘 써서 부자된 임병도>까지 모두 16편이다.

<방귀쟁이 며느리>, <며느리가 돌이 된 미루고개> 등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포를 보이는 설화이다. 반면에 <말이 정해준 못자리>나 <뿔자리를 잘 써서 부자된 임병도> 등은 비교적 화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편,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명 유래 설화도 많이 존재한다. 민요나 설화와 함께 지명 유래 설화는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 역사 문화자원이다. 상서면 일대의 지명 설화와 유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 고개, 마현(馬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마현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마현을 지날 때마다 말에서 내려 걸어 다녔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왜장은 이러한 금기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러자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왜장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타던 말을 죽이고 그 피를 천불암에 뿌렸다고 한다. 이후에 이

곳을 지나던 왜장과 군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협곡으로 떨어져 죽는 재앙을 얻었다고 한다.²³

한편, 비래암 일명 비래바위의 지명과 관련된 전설도 있다. 이 바위는 상서면 구운리에 있다. 해발 970m, 폭 100m, 높이 60m의 기암괴석인 이 바위는 외형이 병풍처럼 깎아지른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바위는 원래 금강산에 있다가, 이곳이 아름다워 날아서 현재 위치로 왔다고 한다.²⁴

그리고 만선동 계곡에서 전하는 지명 전설도 있다. 화천에서 가장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곳이 만선동 계곡이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즐겼다고 하여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²⁵ 현재 이곳은 맑은 물에서만 산다고 하는 산천어가 살고 있어, 근처에 산천어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그밖에 전하는 지명 전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⁶

지명	유래 구분	유래
가라울 (추동, 갈매울)	마을 지명 유래	산양1리, 사방거리 서북쪽 마을.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함. 100대대가 위치한 골짜기로 제 당골 인근 지역.
가무바우	바위 유래	사방거리에 있는 바위
가시락골 (可時樂谷)	골 유래	산양1리 횡천동 마을. 어두운니 뒤편 골짜기의 옛 이름.
갈밭골(盧田谷)	마을 유래	산양1리, 횡천동 마을. 갈대밭이 무성했던 지역. 지원 중대 뒤편 지역.
갈애울-고개 (楸谷嶺)	고개 유래	산양1리, 갈애울 마을 인근에 있는 고개.
갈무바우들 (葛岩坪)	들 유래	예로부터 갯처럼 생겨서 갯무바우라 했는데 이 바위 인근의 들이다. 산양1리 풍천마을 소재. 팔각정이 주변에 있음.
귀영-소	연못 유래	구유처럼 생긴 소.
내-마산동 (內馬山洞)	마을 유래	안마산골.
논골	골 유래	논이 많다는 골짜기.

²³ 현재 말고개(마현)와 그 주변 지역은 6·25전쟁 이후 민간인 통제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말고개에는 한국전쟁 당시 금성 전투 참전 장병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금성 지구 전투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²⁴ 한국 구비문학 대계 홈페이지 참조. <https://kdp.aks.ac.kr>

²⁵ 한국 구비문학 대계 홈페이지 참조. <https://kdp.aks.ac.kr>

²⁶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cmunhwa.or.kr>

²¹ 한국 구비문학 대계 홈페이지 참조. <https://kdp.aks.ac.kr>

²²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cmunhwa.or.kr>

지명	유래 구분	유래
다목리 (多木里)	마을 지명 유래	다목리 지역. 과거 황장목(黃腸木)으로 쓸 나무가 많아서 생긴 지명.
달마지봉 (迎月峰)	산 이름 유래	산양1리 산5번지 소재. 산양리에서 마현리 방면으로 가다 보이는 검문소 뒤편 봉우리. 달이 이 봉우리에 오래 걸려 있어서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이곳으로 달맞이하러 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함.
마-산(馬山)	마을 유래	산양3리 풍천마을 뒤편. 산의 지형이 말과 흡사하다 하여 붙여진 지명.
불당-골 (佛堂谷)	골 유래	산양1리. 달마지봉 아래 왼쪽 골짜기. 내동이 라고도 불림.
사방-거리	마을 유래	산양리에서 가장 큰 마을. 길이 사방으로 나있다고 해서 생긴 지명.
사방거리주막 (四方巨里酒幕)	주막터 유래	4군데 갈림길이었다는 검문소 근처 집터. 주막이 여러 채 있었고 여관도 있었다고 전함.
삼형제-바위	바위 유래	세 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
상산-고개 (常山峴)	고개 유래	마산동에서 방골로 넘어 고개.
성재(城峴)	고개 유래	마산일대에 걸쳐있는 성곽이 있는 고개. 산양1리와3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
승지-골 (承旨谷)	골 유래	산양2리 성곽자리 지나 공병중대 근처 골짜기. 풀무골가기전 오른쪽.
아들-바위	바위 유래	잔 돌을 던져서 없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바위.
안말(內洞)	마을 유래	산양1리 소재. 일제 강점기 때 보통학교자리이며, 비행장이 있었다고 전함. 달마지봉 아랫마을 지칭.
안말-주막 (內洞酒幕)	주막터 유래	달마지봉 인근 산양1리 일대에 있었다는 주막거리.
안산-보 (案山沓)	보 유래	7사단 복지회관 뒤 자리에 위치. 산양2리 소재.
어두언-니(暗山)	산 유래	산양1리 일대의 야산. 5연대 본부 인근.
연자-골(燕子谷)	골 유래	산양1리. 달마지봉 너머 뒷편 계곡.
웃-마산골 (上馬山洞)	마을 유래	마산골 위쪽에 있는 마을.
웃-방골 (上芳洞)	마을 유래	산양3리 소재. 풍천마을 지역 인근의 동네. 풍천마을과 상방동의 중간 지역.
웃-비기내	마을 유래	비기내 위쪽에 있는 마을.
웃치재-골 (上致財谷)	골 유래	산양3리 소재. 매봉산 자락인 상방동에 위치.
윗-들우(上坪)	들 유래	산양1리 지역. 마현리와 산양리 경계지역
잣나무-골	골 유래	잣나무가 많은 골짜기.
절-골(寺谷)	골 유래	방골이라고도 불림. 마산의 상방동 지역에 있는 골짜기. 일제강점기 때 절이 있었다고 함.
제단-골 (祭堂谷)	골 유래	산양2리 소재.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하던 제단이 있었다고 전함.
죽배-고개 (注波嶺)	고개 유래	산양1리 소재. 횡천동쪽에서 금성마을로 넘어 고개.
죽텃-고개	마을 유래	사방거리에서 비기내로 가는 고개 부근의 마을.
죽팻-고개	고개 유래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로 넘어가는 고개.

지명	유래 구분	유래
지당-골	골 유래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
풀무-골(治谷)	골 유래	산양3리 7사단 공병중대 근처 골짜기.
풍-촌(豊村)	마을 유래	산양1리 1반 지역의 옛 이름. 풍년이 자주온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
풍촌-보(豊村沓)	보 유래	산양1리 지역에 위치한 보.
환재-골(環才谷) (환작골)	골 유래	가을걷이 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
환재골-소	소 유래	환재골에 있는 소.
횡-천(橫川)	마을 유래	비기내.

지금까지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지역의 지역 역사 문화자원을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표3>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 문화유산	국가지정 유산	인민군사령부 막사
자연 자원	산약자원	대성산
인문 자원	생활유산	마산동 산성, 김이건, 김득만, 김화징, 김광려 묘표(墓表), 함성구 기념비
복합 자원	특수목적	대성산 지구 전적비, 금성지구 전적비, 칠성 전망대,
	테마마을	평화생태마을(일명 사방거리), 감성 테마 문학공원(감성마을 이외수 문학관), 산약초 마을, 토고미 마을, 부촌리 주막거리와 장승
기타 소프트 자원	스토리	상서면 구운리 산신제(山神祭), 상서면 일대의 전승 민요, 상서면 일대의 전승 설화, 상서면 일대의 전승 지명 설화

상서면 산양리에는 <표3>처럼 한국전쟁과 관련된 군사시설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다채로운 역사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DMZ 접경지역에서는 평화, 안보, 생태 관광 측면에서, 지역 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보존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텔링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화천의 상서면에서는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방법보다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DMZ 접경지역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역사 문화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상서면 산양리는 지정 문화유산에서부터 기타 소프트 자원까지 타 지

역에서 볼 수 있는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특히 을 이용하여 이를 다양한 DMZ 접경 지역 관련 관광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산신제, 전설이나 지명 유래와 등의 구비 문학은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복원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 방안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지역은 지정학적, 역사적 중요성에 기초한 다층적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이 지역의 문화자원은 한국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속 문화자원으로 대표된다. 대성산 지구 전적비, 금성지구 전적비, 인민군 사령부 막사, 칠성 전망대 등은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 현장의 물리적 흔적과 당시 주민 및 군인들의 민속적 삶을 반영한다. 이들 유적지는 전쟁 기억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산양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사적 사건들과 전승이 풍부하다. 임진왜란 시기 말고개 마현 전설은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방어체계와 전투 기록에 대한 구전과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마산동 산성은 조선시대 지역 방어시설로서 전략적 위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부촌리 주막거리와 장승은 당시 교통과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로서 지역 상업과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셋째, 산신제(山神祭)와 같은 지역 신앙은 산양리 주민들의 자연 숭배와 정체성을 나타낸다. 산신제는 지역 산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례이나, 현재는 전승이 중단되어 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 민속 신

앙의 단절과 보존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넷째, 산양리에는 다양한 구비전승 문화가 산재해 있다. 비래바위(비래암) 전설, 만산동 계곡 전설, 토고미 마을 지명 전설 등은 지역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이 융합된 전승 문화로, 주민들의 지역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이 된다. 이들 전승은 구전과 기록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과 역사 인식을 반영하며, 지역문화의 독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다섯째, 김이건, 김득만, 김화징, 김광려 묘표와 함성구 기념비 등은 지역 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물리적 표지물로, 지역사회 기억의 구체화된 형태이다. 이들 기념비는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과 지역 역사 교육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조성된 평화생태마을, 감성테마 문학공원, 산약초 마을 등 생활문화자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 문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평가된다. 이들 공간은 관광자원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산양리 지역은 DMZ와 인접한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와 평화, 역사와 생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특수한 환경을 지닌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역사문화자원의 통합적 관광 자원화이다. 한국전쟁 유적, 임진왜란 관련 유산, 민속신앙과 구비전승, 자연생태 자원을 하나의 관광 코스로 연계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군사 유적 답사를 넘어, 지역의 다층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관광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체험 콘텐츠 개발이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전쟁 유적과 민속 문화를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거나, 현장 방문 시 인터랙티

브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단절된 산신제와 같은 전통 민속문화의 복원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전통 의례를 재현하고, 정기적인 축제와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넷째, 군사 유적과 지역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군사시설과 유적의 안전관리 및 보존에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유적지 보존과 주민의 일상생활, 관광활동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군사 보안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섯째, 각종 기념비와 묘표 등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학계가 협력하여 보존 상태 점검과 정비, 안내 표지판 설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조성된 생활문화자원을 지역 관광 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평화생태마을, 감성테마 문학공원, 산약초 마을 등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문화 자원 보존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평화와 안보라는 접경지역 특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마무리와 과제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양리에는 한국전쟁 관련 전적비와 군사 유적뿐 아니라, 지역 신앙인 산신제, 민요와 설화, 그리고 다양한 기념비와 현대적 생활 문화자원까지 복합적인 문화유산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산양리는 DMZ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평화와 안보, 역사, 생태 관광을 융합한 통합적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 지역 내 민속문화 복원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군부대와 주민의 협력 문화행사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자원의 생명력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양리의 역사문화자원을 DMZ 및 강원도 내 다른 군사도시와 연계하면 ‘군사문화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관광 활성화, 평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산양리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 참여를 병행한다면, 산양리는 DMZ 접경지역 및 군사도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인호 외, 「지역 역사 문화 및 생태자원의 개발 진단 및 활용 방안」, 『한국지방자치학 회보』 26(1),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 강종원, 『DMZ 사방거리 평화 생태 문화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원연구원, 2021.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DMZ연구팀, 『DMZ 접경지역 기행: 화천』, 경인문화사, 2022.
- 국립민속박물관편, 『마을 제당: 강원도』,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상민·박진경,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2(1), 지방행정연구학회, 2018.
- 김영규, 『근남&근남사람들』, 철원군, 2019.
- 김의숙·이창식·이학주·최명환, 『화천사람들의 삶과 민속 문화』, 대산, 2005.
- 채용식, 「화천 산천어 축제 관광객의 변화 추이 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8(3), 관광경영학회, 2014.
- 화천군편, 『화천 감성 여행』, 화천군청, 2022.

2. 기타 자료

-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 <https://www.kado.net>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istory.go.kr>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 <https://kdp.aks.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s://encykorea.aks.ac.kr>
-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홈페이지.
https://dmz.go.kr/front/wantgo/area_village/view/657
-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tour.ihc.go.kr>
-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hcmunhwa.or.kr>

Abstract

Contents and Utilization of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in Sanyang-ri, Sangseo-myeon, Hwacheon-gun, Military Border Area

Yoo, Choon-Do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ontents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scattered in Sanyang-ri, Sangseo-myeon, Hwacheon-gun, and discusses how to use them. Since this place, one of the representative DMZ border areas of Korea, was a civilian-controlled area, the detailed reali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region has not been known.

The specificity of the border region adjacent to the DMZ, the life culture formed by soldier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the local population,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scattered in the region exist here. Recently, the DMZ border region is promoting regional revitalization in terms of peace, security, culture, history, and ecotourism. Sanyang-ri, Sangseo-myeon, Hwacheon-gun, needs a plan to utilize and specialize in various cultural assets in the region while benchmarking this trend. This article deals with these contents.

Keywords Hwacheon-gun, Gangwon-do, Sanyang-ri, Sangseo-myeon, DMZ border area,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local cultural resources, contents

이 논문은 2025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6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